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음악교육의 방향 탐색

정진원*

본 연구는 예술의 교육적 역할과 가치를 사회적 담론 및 관련 연구를 통해서 탐색하고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음악교육의 역할 및 향후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담론에서는 성찰적이며 창의적인 예술의 본질을 교육개혁의 원동력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예술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예술 안에서의 교육’, ‘예술을 통한 교육’ 등 다양한 시각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각 예술 영역의 본질을 살린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경험이 확보될 때 예술 교육에 기대되는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음악교육 역시 음악의 예술적 본질에 입각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서 소통적, 창의적, 문화적 가치들을 의미 있게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음악교육에 기대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21세기 예술교육, 예술교육의 효과, 예술교육의 질, 음악교육의 역할

차 례

- I. 서론
 - II. 사회변화와 예술교육
 - 1. 21세기 사회의 교육
 - 2.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
 - 3. 예술교육의 질에 관하여
 - III. 음악경험의 본질과 음악교육
 - 1. 음악적 표현을 통한 소통
 - 2. 창의적 경험으로서의 음악경험
 - 3. 음악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 IV. 결론
- 참고문헌

*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jwchung@cnu.ac.kr)

I. 서론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 사회는 변화와 다양성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교육은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지식의 축적과 기술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의 격차, 소수 집단의 소외,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소통과 화합의 문제, 환경의 오염과 같은 사회적 과제에 대한 통찰뿐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고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보편적인 책무성으로 강조되고 있다(Trilling & Fadel, 2009). 사회의 다변화와 함께 열기를 띠게 된 교육에 대한 사회적 담론들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직면하게 된 새로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교육은 변화의 적응과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영역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21세기의 도전에 관한 보고서(Martin, 2007)에서는 향후 우리의 청소년이 직면하게 될 도전으로 1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17가지에는 지구의 보존, 가난의 극복, 적절한 인구의 유지, 지속 가능한 삶의 방법 탐색, 전쟁의 방지, 세계화에 대한 적합한 대처, 테러 방지, 창의성의 신장, 질병의 극복, 인간 잠재력의 지속적인 개발, 특이점(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앞지르는 지점), 존재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인류 한계 능력의 확대, 문명의 발달을 위한 계획, 지구 보존하기, 기술과 지혜의 격차 줄이기 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목록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또 다른 기술이나 과학의 진보 또는 정책의 발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과 인간 창의성의 건전한 발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교육에 두는 것은 기존의 역사에서 ‘진화’의 과정이 자연의 몫이었던 것에 비하여 향후 인류의 진화는 지식과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인간’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교육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발생지이자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적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새로운 교육은 단편적 지식이나 기술의 작위적 습득을 지양한다. 창의성, 소통, 협동, 자발적 탐구 능력 등이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요인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다 영역에 확장적인 전이와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지식,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창

의성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보편적 기능으로 묘사하고 있다(Trilling & Fadel, 2009; Pellegrino, Hilton, 2012).

국제사회는 OECD, UNESCO와 같은 공적인 논의 장을 통해서 21세기 교육의 방향 전환을 위한 상당히 구체적인 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들은 각국의 교육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1세기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에 함께 하고 있다. 예컨대 2007, 2009 그리고 2015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을 거치면서 인성과 창의성의 강조,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 세계와의 소통 등과 같은 범교과적 역량 요소들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요소 내지는 교육의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의 변화에서 예술교육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유적, 창의적 본질을 바탕으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 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다(UNESCO, 1999; 2005, 2015). 그러나 예술교육이 사회, 정치,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된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의 실마리로 논의된다고 할 때, 이러한 논의에서 공유되고 있는 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며 기대되는 역할의 범위와 내용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향후 예술 교육에서는 그 중심을 예술의 본질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술의 방법을 통한 또 다른 문제의 해결에 두어야 하는지, 예술교육에서 예술 각 영역의 고유성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등, 예술교육의 정체성 정립 및 실천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음악교육에서도 이러한 고민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2015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에서는 ‘음악교과는 다양한 특성을 통해서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2015, p. 3)’라고 제시함으로써 근간 세계 주요국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과의 ‘목표’가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계발을 통해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에 이바지한다(교육부, 2015, p. 4)’로 제시됨으로써 자칫 인성 교육이나 문화교육이 음악교육의 본질에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의 도전들,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적 패러다임 변화의 맥락에서 예술 교육에 기대되는 일련의 사회적 요청들을 간과하기 어려운 까닭에 어떠한 기준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는 음악교육의 정체성과 역할 설정에 있어서 민감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변화와 교육적 요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예술교육의 역할과 가치의 근거를 사회적 담론 및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연장선상에서 예술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에 기대되는 역할과 향후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담론이란 사회 현상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다수의 논의를 거쳐 정리된 의견 또는 제안 등을 다수의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제시된 공적 담화 또는 선포의 의미로 적용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 및 문헌에 대한 해석적 분석 방법을 적용할 것이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담론에서 나타나는 예술교육에 대한 옹호의 맥락은 무엇이며 강조되고 있는 예술의 교육적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 2) 예술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이 추구해야 할 음악 경험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음악교육의 역할은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가?

II. 사회변화와 예술교육

1. 21세기 사회의 교육

1980년대부터 국가, 학계, 비영리 단체, 그 밖의 협력적 정책기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현대사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21세기를 맞이하며 국제사회 수준의 공적 논의로 적극성을 띠게 되었으며 그 범위도 각국의 교육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Mindy, 2013; Fadel, 2012). 이러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은 경제와 테크놀로지의 빠른 변화이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도전은 매우 다양하고 직접적이어서 국가뿐 아니라 개인 삶의 존속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변화의 적응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며 적극적인 교육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Trilling & Fadel, 2009).

사회적인 시각에서 주목하고 있는 교육의 역할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것과 사회의 다변화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 심성을 갖추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김기현, 2008; 윤현진, 2007).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단편적인 지식의 누적이 무의미하며 양산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복합적인 현상을 빠르게 이해하고 이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지식의 방대함, 맥락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의 문제 해결은 개인과 집단의 협업, 다양한 시각의 수용,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 OECD(Mindy, 2013)는 현대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술들(skill)의 범주를 기능적 기술(technical skills), 행동 사회적 기술들(behavioral-social skills), 사고와 창의성에 관련된 기술들(Skills in thinking and creativity)로 제시하고 있으며, UNESCO(2015)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 목표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범주로 인지적 기능, 사회-정서적 기능, 행동적 기능을 제시한다. 미국의 대학교육 연합인 AAC&U(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ies: 2009)는 고등 교육 이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skills)로 인류의 문화와 물질적, 자연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인지적, 실행적 기술,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통합적 학습에 대한 능력 등을 들고 있다. 이 밖에도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기술, 정보처리 기술, 의사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 관찰, 호기심, 상상력, 자기 확신, 역동성, 인내심, 열정, 협력, 소통 등, 더욱 다양한 능력 또는 기능 요인들이 21세기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능(skill)’이라는 명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들을 살펴볼 때 ‘기술(skill)’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정보처리 기술이나 테크놀로지 활용 기술은 그 의미가 명료하지만 열정, 자기 확신, 인내심과 같은 개인의 내적 성향이 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에서 ‘기술(skill)’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대부분의 능력 요인이나 성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사회 발전과 관련된 교육적 담론에서 ‘기술’이란 표현의 의도적 적용을 통해서 향후 교육적 개혁의 방향이 추상적인 모호함에 그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포괄적이고 범교과적인 능력 요인들이 ‘기술(skills)’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개념과 결합할 때 학문 또는 교과외의 개별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OECD가 주관한 ‘혁신을 위한 교육에 미치는 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

서(Vincent-Lancrin, 2013)에서는 ‘21세기 기술 범주(skill categories¹⁾)를 설정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1) 기술의 범주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나, 2) 상호 차별성을 가지며, 3) 측정 가능한 단일 기능들로 축약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술의 범주들은 영역 특화적(domain-specific)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범 영역적(domain-generic)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영역 특화적이란 개념을 ‘음악적 창의성’에 적용해 본다면 우선, ‘음악’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창의적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음악적 맥락 안에서 음악적 방법으로 소통하며, 음악적인 문제를 음악적인 의미에서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때, 음악적인 사고능력과 창의성을 갖추게 된다. ‘범 영역적인 창의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의미는 개인이 교육의 여러 영역과 장면에서 ‘기능-사회적 행동-사고와 창의성’으로 이어지는 학습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 이러한 기술의 범주들은 범 영역적, 또는 범교과적 차원에서 ‘생각의 습관(habit of mind)’으로 자리 잡게 되며, 나아가 새로운 영역과 경험에 적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Vincent-Lancrin, 2013, p. 6).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볼 때 21세기 사회,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담론에서 제시되는 기술, 기능(또는 ‘역량’)의 의미 해석은 영역 내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타 영역과의 연계 가능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

1) 배경

세계시민의 공공복지를 추구하는 비영리 협의 기구인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기구가 공식적으로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1세기 사회의 중요한 요구들에 직면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으로써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 학습은 창의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해당 보고서에서는 예술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술의 범주로 ‘Technical skills’, ‘Behavioral and social skills’, ‘Skills in thinking and creativity’를 제안하고 있다.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creativity/arts-education/about/background/>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48년 UNESCO의 제3차 정례 세미나에서부터 표명되었다. 당시의 관심은 교육의 전체성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공교육에 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1948, para 2.54). 1999년 UNESCO에서는 21세기 교육을 위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21st Century)’를 소집하고 그 결과물로 ‘Learning: treasure withi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예술과 창의성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Delors et al., 1996).

… 개개의 구성원이 자신의 정체성과 타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상호 연합을 향해 예기치 못하게 성장하는 세계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도덕성과 문화적 관점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지식과 명상, 그리고 자아-비판의 내면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 예술은 그 본질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의 미적이며 성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Delors et al., 1996, 17).

UNESCO는 예술교육을 통해서 도달 할 수 있는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수용 그리고 창의성을 현대 사회가 직면하는 변화에 대한 적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열쇠라고 보았다.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예술교육을 위한 제1차 세계학술대회’에서는 예술의 창의적 잠재력에 주목하고 예술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전반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UNESCO, 2006). 예술교육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누려야 할 교육적, 문화적, 권리임을 확인하고 예술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은 모든 국가에서 필수교과로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 발전에 따라 예술교육의 기회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질적 수준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향후 예술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된 것은; 모든 구성원이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할 것, 개인의 예술적 창의성을 계발할 것, 지역 문화연계, 교사교육을 통하여 예술교육의 질을 향상할 것, 문화적 다양성의 표출을 장려할 것 등이다. 리스본 학술대회에서 제시한 미래 예술교육의 역할은 단지 예술을 위한 교육

(Arts Education or Education for arts)뿐 아니라 예술을 통한 교육(Arts-in-Education or Education through arts)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창조성과 사회성은 21세기 예술교육이 기여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로 제시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바이다. “사회를 위한 예술, 창의성을 위한 교육(Arts for Society, Education for Creativity)”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에서 개최된 2010년의 제2차 유네스코 세계 예술교육을 위한 학술대회에서는 과학 및 지식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는 감각과 이성의 통찰을 추구하는 예술 교육의 의미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UNESCO, 2010). 특히 리스본 1차 학술대회에 이어 미래사회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실천적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대회를 통해 선포된 예술교육 아젠다는 현재 각국의 예술교육 이정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서울대회를 통해 제시된 미래 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아젠다(2010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이다 <표 1>).

<표 1> UNESCO 2010 Seoul Agenda

목표(Goals)	전략(Strategies)
1. 심도 있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지속적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a. 어린이와 청소년의 조화로운 창의적 인지적 감성적 미적 사회적 발달의 근간으로서 예술교육을 주창할 것. b. 예술교육을 통해 교육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것. c. 예술교육을 통해 평생 및 세대 간 학습의 체계를 확립할 것. d. 예술교육의 가치를 홍보하고 예술교육정책을 활성화하여 예술교육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할 것.
2.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그 착상과 실천에서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a. 학교 및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예술가와 교육가 간의 협력을 촉진할 것. b. 교육자, 예술가,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술적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c.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예술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도록 할 것. d. 예술교육에 있어 이론·연구·실천 간에 논의 및 상호 교류를 촉진할 것.
3. 오늘날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도전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a. 사회 전반의 창의적 혁신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교육을 적용할 것. b. 사회적 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전시킬 것. c. 사회적 책무, 사회적 통합문화의 다양성 및 문화 상호 간 대화를 촉진하면서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제고할 것. d. 세계 평화로부터 지속할 수 있는 발전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술교육 역량을 촉진할 것.

서울 아젠다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교육의 목적과 역할은 단지 예술에 대한 이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은 감성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강력한 자아 표현의 방법을 제공하며, 자신의 개성과 감정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고 자연과 세계 그리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예술은 감성과 이성을 연결하며 감각과 지각, 논리를 동반하고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을 연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예술의 가능성은 다각적으로 조망되고 있으며 특히 예술을 통하여 끌어낼 수 있는 개인 발전의 가능성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역할들은 미래 사회를 위한 예술교육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해야 할 바는 이러한 교육적 효과의 출발점이 양질의 예술 경험(아젠다 목표 2)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예술교육이 학생의 창의적, 인지적, 감성적, 미적, 사회적 발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술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예술적 원리’의 실천과 적용(아젠다 목표 3)을 통해서 기대될 수 있는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 예술의 교육적 효과

예술은 그 본질상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며, 예술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는 사회의 혁신(social innovation)이 교육과 연동되면서 더욱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메타 연구로는 OECD 주관으로 이루어진 ‘예술의 본질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Winner, Goldstein, Vincent-Lancrin, 2013))’과 UNESCO가 주관한 ‘Wow 효과(The wow factor(Bamford, 2006))’를 들 수 있다.

위너(Winner, E) 등의 연구는 사회 혁신을 위한 21세기 기술 습득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교육적 방안 간구에 대한 요청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에서는 예술교육과 ‘21세기 기술’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의 측면에서 예술이 수학, 과학, 읽기와 쓰기, 자기-신뢰도, 원활한 소통 능력 등과 같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는 1980년 이후 독일, 영국,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에서 시행된 음악교육, 심리학, 교육학, 뇌신경학 영역의 방대한 연구 데이터에 대한 메타 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언어, 수학, 공간지각 능력; 창의성; 학업 동기; 공감, 자기존중, 감정조절과 같은 사회 행동적 기능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에

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중심 예술교육’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법과 수준의 ‘예술 경험 중심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타 영역이나 타 교과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에 대한 교육’이나 ‘예술을 방법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제외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예술 영역들(음악, 미술, 연극, 무용)은 각 영역의 고유 특성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기능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음악은 일반 지능(IQ), 학교 학업, 음운 감지능력과 같은 일부 언어능력과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연극은 글쓰기와 스토리 이해 능력, 말하기, 어휘력과 같은 언어능력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밖에 미술은 지리적 위치 파악 능력, 무용은 공간-시각적 능력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예술교육에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창의성과의 관련성은 창의성의 다양한 정의와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한계로 인해, 공론화시킬만한 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공감, 자기존중, 협동,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과 관련해서는 일련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각 예술 영역에 따른 주목할 만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Winner, et. al., 2013, pp. 4-9). 연구의 결론에서는 예술교육에 기대되어온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에 대한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로 데이터의 부족과 관련된 능력과 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한계를 들고 있다. 그러나 분석과정에 발견된 질적 증거들과 장면들은 예술실행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고과정(studio thinking)이 상상력, 표현, 관찰력, 성찰 능력, 탐구능력과 같은 ‘마음의 습관(habit of mind)’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예술 교육의 이러한 잠재력은 예술 경험의 고유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교육의 효과와 함께 숙고하여야 한 주제는 예술교육의 질(quality)에 관한 것이다. 통계적 수치가 지지하는 객관적인 상관관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창의성과 관련되어있다는 믿음은 보편적이며, 우리는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06년 UNESCO 주관으로 시행된 연구 프로젝트인 ‘The wow effect’는 세계 각국(40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차별성,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방대한 대상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이 동반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각국의 예술 교육 실태와 예술교육이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표 2>).

<표 2> 'The wow effect(Bamford, 2006)' 프로젝트 결과 요약

실태	• 예술교육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두되고 있음. • 예술정책을 통한 말뿐인 공약과 실제로 지원되는 예술교육에는 차이가 있음. • 예술교육의 의미는 각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차이가 있음. • 음악, 그리기, 회화, 공예 등은 모든 국가의 필수 예술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음. • 경제 선진국에서는 영화, 사진, 디지털 예술 등의 새로운 매체를 교과에 포함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경우 문화적으로 특수한 예술을 더욱 강조함. • '예술 안의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이 발견됨.
효과	• 예술교육은 어린이, 교육 학습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침. •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예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함. • 수준 높은 예술교육은 어린이의 안정과 사회·문화 복지에 뚜렷한 혜택을 가져다 줌. •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는 오직 양질의 프로그램 안에서만 가시적으로 나타남. • 양질의 예술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와 학교 밖의 예술, 지역사회 간의 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임.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양상이나 효과와 더불어 논의해 보아야 할 몇 가지의 발견들이 나타난다. 국가 차원에서 문서로 제시된 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내용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제도와 같은 예술교육의 틀과 함께 그 안에 담기는 예술교육의 질이 지속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예술교육이란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미술, 음악, 무용 등 각 영역의 예술을 가르치는 '예술 안의 교육'과 수리적 지식, 읽고 쓰기, 기술과 같은 또 다른 능력의 습득을 위한 교수방법으로 활용되는 '예술을 통한 교육'의 차이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예술 안의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프로그램으로 부터의 긍정적인 효과는 오직 '양질의 예술 경험'으로부터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Bamford, 2006, 9-10).

3. 예술교육의 질(quality)에 관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예술교육에 대한 논의는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질(quality)’의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The wow effect’에서도 예술교육의 질은 예술 교육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강조되었다. 동일한 인식에서 세이들 외(Seidel, et al., 2009)는 미국의 모든 학생이 개인적으로 질 높은 예술체험을 하고 예술에 대한 향수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예술 수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예술교육에 필요한 ‘수월성(excellence)’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들은 질 높은 예술 수업의 실체를 탐색하기 위해서, 예술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예술교육의 ‘우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누가 예술을 가르치는지, 어디서 예술을 가르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예술학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우수한’ 예술프로그램의 선별하기 위한 기준 설정을 위하여 예술 분야의 저명한 이론가, 프로그램 실행가,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문을 실시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예술수업(high quality learning and teaching)의 요건을 다음의 7가지로 설정하였다.

- ① 교육을 통해서 해당 예술 영역의 기술과 안목을 발전시키며 특별히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관계성을 인지하는 능력을 중시하는가?
- 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적 기술과 테크닉의 발전이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 ③ 미적 감수성 개발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 ④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가?
- ⑤ 예술을 통해 지역, 도시 및 사회적 문제들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가?
- ⑥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가?
- ⑦ 인격체인 개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문헌 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질 높은 예술 경험 사례들의 특징은 크게 학생이 경험하는 예술적인 학습요인, 예술적 경험을 끌어 낼 수 있는 교사요인,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교실-학교-지역-국가 간의 파트너십, 그리고 예술적인 환경조성 요인들이다.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그룹 안에서 소통을 경험할

때, 상상불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 연습에 대한 보상
으로 기술 습득 및 표현을 완성해 나가는 경험을 할 때 자신이 질 높은 예술 경
험을 했다고 느꼈다. 또한 이러한 질적 예술 수업에서 학생들은 스스로가 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몰입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자신의 작품이나 표현 또는 타인의
작품이나 표현에 대한 발전적인 성찰과 비평의 방법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다.
교수 요인의 측면에서는 가르침의 과정에서 예술적 의미를 진지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교사의 예술가적 진실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예술의 기능
적 측면뿐 아니라 내면의 의도를 표현으로 끌어내는 예술적 사고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학습자의 시각에서 배움의 과정을 이해하여 학생의 과거
경험과 현재를 연결하는 통찰적인 교수 능력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
한 계획성과 함께 실행의 유연성과 과정 평가의 투명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교실
내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지역, 국가 차원의 원활한 파트너십은 학생
들 간의 관계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및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술
공동체(community dynamic) 차원의 교육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 밖에도 예
술 학습을 위한 공간, 제공 가능한 자료들, 필요한 시간 등의 환경(environment)
적 요인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예술 교육의 질적 우수성(Excellency) 결정 요인

영역	내용
예술적 학습 경험 요인	-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예술적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 목적적 경험 - 정서적인 개방과 진실성 - 예술 활동의 주체로 경험하는 직접 체험 - 반성과 토론을 통한 예술적 정체성의 경험
교수 전문성 요인	- 진실성 - 예술적 탐구과정을 시범 보일 수 있는 능력 - 학생들의 학습 경험에 같이 참여하는 소통 능력 - 이전의 학습경험과 연결하고 관련지어주는 능력 - 계획성, 유연성, 투명성
파트너십 요인	- 교실, 학교, 지역사회, 국가 간의 협력 - 상호 존중과 학생 잠재력에 대한 신뢰 -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
환경 요인	- 기능성이 높고 심미적인 공간과 재료 - 예술이 중심이 되는 환경 - 예술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

Ⅲ. 음악경험의 본질과 음악교육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로 예로부터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사람은 음악 활동을 통하여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얻고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삶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교육과학부, 2007, 137).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음악 교과는 음악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

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로 인간의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인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음악 교과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부, 2015, 3).

예술로서의 음악은 감각과 사고, 표현과 공유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인간 삶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됐다. 특히 교육적 목적을 지니는 음악 경험은 지식, 정서, 그리고 기능의 유기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감정의 발산이나 즉흥적 반응과 구별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음악교육 역시 예술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음악경험에 대한 교육적 기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표현과, 창의성, 문화적 소통을 음악경험 안에서 그리고 음악경험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로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음악교과에서 전인교육과 창의성 등의 범교과적 목표 달성과 ‘역량’과 같은 낯선 개념이 언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도 우리는 음악교육에서는 본래부터 그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회·문화적 담론의 내용을 음악교육에 투영해 본다면 현재 음악교육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와 역할들이 음악교육의

본질과 음악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의 차원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실천되고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1. 음악적 표현을 통한 소통

: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음악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표현과 소통에 있다. 이는 예술로서 음악이 갖는 미적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에 앞서 모든 사람에서 음악이 필요한 이유일 수 있다. 쾰트 블라우코프(Blaukopf, 1992)는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음악적 삶(Musical Life in Changing Society)’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음악을 미적 관조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표현 행위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음악은 본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탄생되었다. 따라서 음악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다루기에 앞서 인간의 보편적인 사회적 표현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음악에 내포된 사회-기능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 하거나, 즐길 수 없다. 또한 자신의 맥락 안에서 음악으로 표현해 보지 않고 음악을 이해할 수도 없다(Blaukopf, 1992, 5).

그러나 음악을 인간의 본유적인 사회적 표현 행위로 이해할 때 음악교육에서는 두 가지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 행위로서 음악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라면 음악교육은 모든 학생이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레젤스키(Regelski, 2006)는 음악교육은 1) 모든 구성원에게, 2) 상호 통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음악표현의 방식을 3) 체계적인 방법과 수준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 습득하는 음악적인 기초 능력들, 예컨대 음정에 맞추어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자발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하면서 음악적 경험의 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핵심이 되는 기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음악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음악적 지식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음악에 담기는 표현적 의도, 가치, 은유 등을 스스로의 삶의 맥락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음악을 통한 자발적인 표현에 대한 의지, 열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Younker, 2013). 현시점에서 ‘음악적 역량’이란 개념을 논해야 한다면 음악에 대한 학습이 교실 안의 수동적인 경험에서 머무르는 것을 넘어 학생의 실제적 삶

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활용됨으로써 의미와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2. 창의적 경험으로서의 음악경험

: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며...’

델로스(Delors, et. al., 1996)는 예술이 갖는 교육적 원동력을 예술이 끌어내는 내면의 성찰에서 보았다. 예술의 과정은 지식과 명상,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내적 성찰을 끌어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세이들 외(Seidel, et. al., 2012)의 논의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학생들은 진정성 어린 예술적 탐구의 과정(음악에 적용한다면 진정성 어린 음악적 탐구의 과정)에 참여할 때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 예술적 탐구의 과정은 정서적으로 개방적이며, 진지하고, 직접적이며 주체적이다. 음악 학습 경험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음악 예술적 사고의 원리를 담고 있어야 하며 창조를 통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이 예술의 과정으로 경험될 수 있다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영향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것이 될 것이다. 레겔스키(Regelski, 2006)는 음악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음악 경험에 진정성을 불어 넣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우리의 학생들은 어디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실제로 현대의 일상에선 어디든지 음악이 있지만 진정성이 깃든 예술의 경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어디에서도 음악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음악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예술 교육이 되고자 한다면 세이들이 탐색한 바와 같은 진정성 어린 음악예술의 경험,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미를 표현하는 직접적이며 창의적인 음악활동(Regelski, 2006)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가는 이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스스로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성찰해야 한다.

3. 음악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문화(culture)’란 사회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누적된 방식이나 기준들을 의미한다²⁾. 앞서 살펴본 현대사회와 예술교육에 대한 담론에서 가장 빈

번히 등장하는 개념은 문화적 다양성이다. 음악을 소통을 위한 사회적 실행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실행들이 누적되면 음악적 문화를 만든다. 모든 예술의 영역에서 반복되는 표현의 방식들이 누적되면 장르와 형식을 이루고, 이는 특정한 시대와 집단을 대변하는 문화가 된다. 현대 예술교육의 미덕이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에 있다면 현대 음악교육에서도 문화적 다양성 수용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숙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음악문화의 다양성 수용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 여러 나라의 민요를 들려주고 가사에 나타나는 그들의 풍습과 의상을 알아보고 간단한 인사말들을 섞어 노래 부르곤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인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타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저진슨(Jorgenson, 2003, 61-74)은 현대의 음악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 수용의 의미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감정과 생각의 음악적 표현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근본적으로 창의적 속성을 띠는 음악의 특성으로 인해 누군가에게서 처음 시작된 새로운 음악적 표현이 또 다른 몇몇에 의해서 동의를 얻게 될 때 새로운 음악 문화가 새롭게 탄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음악 교실 안에도 다양한 음악 문화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를 누리고 있는 여러 그룹의 학생들이 공존 한다는 의미이다. 누군가는 힙합을, 누군가는 하드 락을, 그리고 누군가는 재즈나 클래식을 그들의 음악 문화로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 교실에 선생님은 학생들이 이해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음악을 가지고 들어와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을 설득한다. 저진슨은 교실에서의 음악교육 과정을 문화의 전달 과정으로 묘사한다. 새로운 문화를 낳은 이들에게 소개 하려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호의적인 태도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문화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시각에서 최대한 이해 가능하게 설명하려 할 것이다. 일상의 음악교육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화의 다양성 수용의 차원에서 우리는 학교의 음악교실에서 음악 문화의 문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루고 있는지 성찰 해 볼 필요가 있다.

2)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ulture>

IV. 맺으며

표현을 통한 소통,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 창의성, 심미성 등 예술교육과 관련된 주제들은 음악교육의 당위성이나 음악교육의 질적 수준의 발전과 관련해서 친숙하게 다루어져 왔던 주제들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의 음악교육’이란 동일한 주제의 담론들은 시기와 화자(Blaukopf, 1992; Jorgenson, 2003; Regelski, 2005; Kratus, 2007)를 달리하면서 제시되고 있지만 유사한 논제와 제안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음악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본 논의의 시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화자 되는 사회·문화적 담론에 대한 개괄적인 탐색을 통해서 예술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음악교육이 갖는 의의와 사회로부터 요청되는 향후의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잡기 어려운 기술의 발전과 다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구성원 각자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은 변화에 대한 적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이다. 담론을 통해서 볼 때, 예술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은 개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음악교육의 역할과 가치란 단일한 논의로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며 문자적 표현으로는 그 의미 전달에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지속적이며 다각적인 논의는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술의 과정이 그러하듯 진지한 자아-성찰과 자기-비판을 통해서 더욱 진보된 음악교육 문화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더욱 발전된 논의를 위한 하나의 발의로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음악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른 도전들은 적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개혁의 흐름은 향후 음악교육의 역할이나 가치 설정에서도 일련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국제사회는 예술교육으로부터 기대되는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의 수용, 공감과 소통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술교육을 교육 개혁의 핵심 영역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술교육에 대한 사

회적 기대는 음악교육의 입장에서조차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향후 음악교육의 역할과 가치 설정에 있어 음악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기대에 대한 타당한 해석과 실천을 위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예술의 역할과 가치가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의 관련성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교육의 가치는 각 예술 영역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예술교육을 통해서만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음악교육의 가치와 위상은 음악적 본질에 입각한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서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 음악교육을 위한 논의에서는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고 음악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제도와 정책, 파트너십,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창의적 환경의 확보, 교사교육을 포함한 음악교육의 예술적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과정해설(IV): 체육, 음악, 미술**.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 김기현 (2008). **아동 청소년기 핵심역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연, 이영애 (2010).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와 우리 음악교육. **음악교육연구**, 39, 209-220.
- 윤현진 (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연구I**.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Bamford, A. (2006). **Wow factor: 예술이 교육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백령 역. 서울: 한길아트.
- AAC&U (2009). Talking Points: AAC&U 2009 Member Survey Findings.
<https://www.aacu.org/about/membership/surveytalkingpoints>
Retrieved 2017/08/20
- Blaukof, Z. (1992). *Musical life in a changing society*. Translated by D. Marinelli. Portland OR: Amadeus Press.
- Delors, J. et al.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Paris, UNESCO.
- Fadel, C. (2012) What should students learn in the 21st century? *OECD Education Today*
<http://oecdeducationtoday.blogspot.kr/2012/05/what-should-students-learn-in-21st.html> Retrieved 2017/08/07
- Jorgensen, E. R.(2003). *Transforming Music Education*. Bloomington, IN: University of Indiana Press.
- Kratus, J. (2007). Music Education at the Tipping Point. *Music Educators Journal*, 94(2), 42-48.
- Martin, J. (2007). *The meaning of the 21st century*. NY, NY: Penguin Press.
- Mindy, F. (2013). *APEC human capital policies for green growth and employment: project report*. Singapore: APEC
- Pelligrino, J. W., Hilton, M. L. (2012). Education for Life and Work: Developing Transferable Knowledge and Skill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ni Press.
- Regelski, T. (2006). *Reconnecting music education with society*. MayDay

- Group.
- Seidel, S., et al. (2009). *Qualities of quality: Understanding Excellence in Arts Education*. Project Zero.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Trilling, B. & Fadel, J. (2009).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CA: Jossey-Bass.
- UNESCO (1948).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UNESCO.
- _____. (1999)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30th Session Paris, 26 October to 17 November 1999*. Paris: UNESCO.
- _____.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Paris: UNESCO.
- _____. (2006) *Road Map for Arts Education. Building Creative Capacities for the 21st Century*. Paris: UNESCO.
- _____. (2010) *The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Paris: UNESCO.
- _____. (2015). Theme: Art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International Arts Education Week, 25-31 May 2015*.
- Vincent-Lancrin, S. (2013). *The impact of arts education on skills for innovation: What we know*. Brussels: OECD
- http://www.vlor.be/sites/www.vlor.be/files/brussels_-_arts_education_-_december_2013.pdf Retrieved 2017/08/22
- Yunker, B. A. (2012). Role of music has been to communicate. In A. Palmer ed., *Tanglewood II: Summoning the Future of Music Education* (Kindle Locations 12-13). Gia Publications. Kindle Edition.
- Winner, E., et al. (2013). *Art for art's sake?* OECD Publication.

ABSTRACT

**Contemplating Social Discourses on Arts
Education in 21st Century and Implications
for Music Education**

Jin-Won Chung

This study explored the role and value of art education discussed in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social discourses and related research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iews reflective and creative power of arts as the driving force of educational reform. In addition to expanding opportunities for art education around the world,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is emphasized in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education in art' and 'education through arts'.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positive educational effect expected from art education is based on ensuring the quality of education based on the essence of art. The quality of art education has shown to be closely related to direct experience based on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each artistic area, professionalism of teaching factors to experience artistic inquiry,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of education community and government, and environmental factors centered on art.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discussed the issue of the meaning and the quality of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essence of music education in the future value and role setting of music education expected in modern society.

Key words: 21st century art education, effect of art education, quality of art education, role of music education

투고일: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11일(10월 20일), 게재확정일: 11월 2일